

UX/UI 요구분석



작성자 박새봄

차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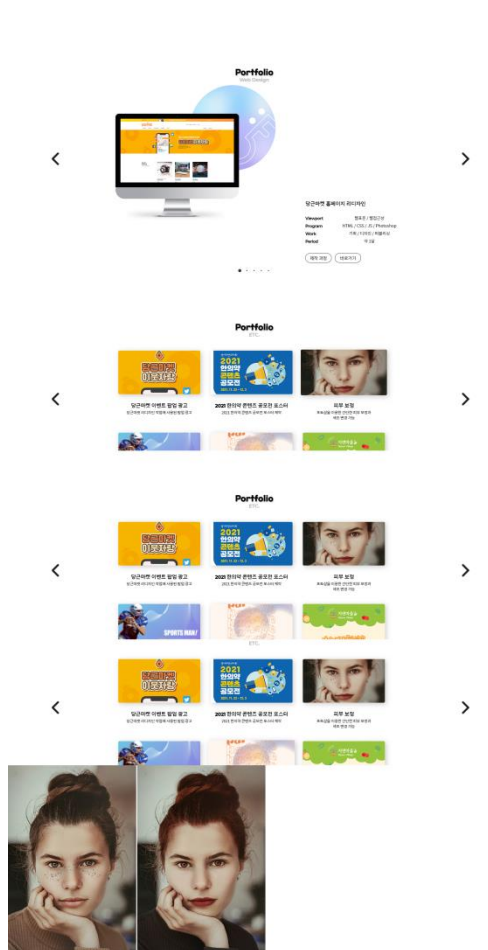
1/ 벤치마킹 분석

2/ 페르소나 모델

3/ 정보구조도

4/ 와이어프레임

➡ 벤치마킹 분석



본인을 '새로 고침'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신선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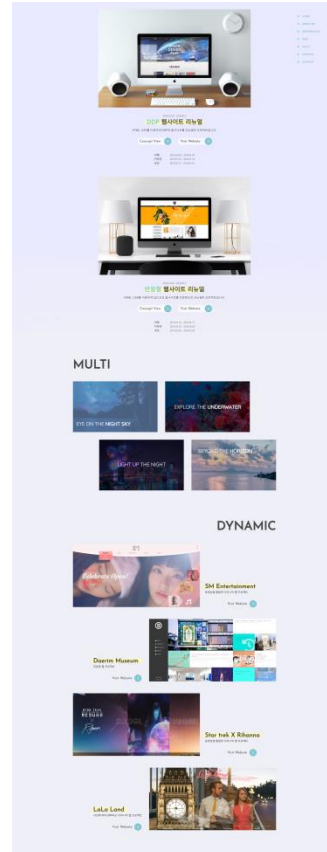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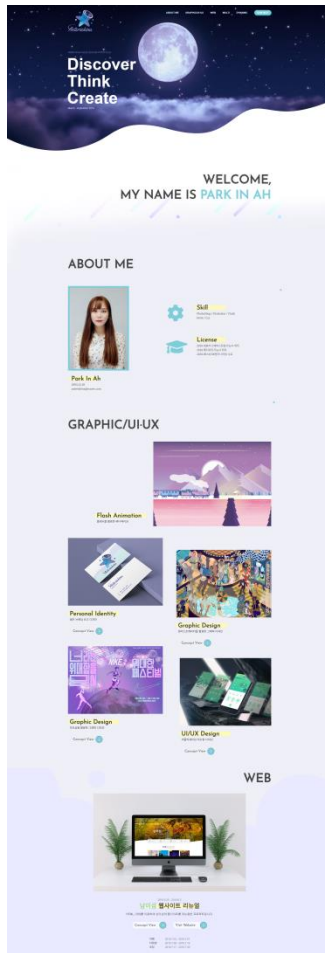
과하지 않은 깔끔한 디자인, 편안한 텍스트 가독성, 한 눈에 확 들어오도록 배치한 작업물 등 '보기에 편하다' 또는 '내용 전달이 잘 된다'가 장점이나

다음 작업물을 보기 위해 슬라이드 버튼 클릭 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구조로 사이트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무한 뒤로 가기를 눌러야 했던 것이 상당히 불편했다.

또한 사이트의 구조적 문제인지, 캡처 도구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캡처 시 홈페이지 아래 부분은 겹치거나 잘리기도 한다.

출처 : <http://www.f5-oh.com/>

➡ 벤치마킹 분석



포트폴리오 제작자 본인의 확고한 취향을 전반에 잘 녹여 정말 아이돌 앨범 같은 느낌이 난다.

텍스트는 제목과 같은 꼭 필요한 내용만 있으며 이미지 위주의 배치로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면서도 모든 작업물들을 후루룩 눈에 담을 수 있었고

내비게이션을 클릭해도 한 페이지의 어느 부분으로 이동되어 스크롤을 내리든 내비게이션을 클릭하든 화면 이동이 깔끔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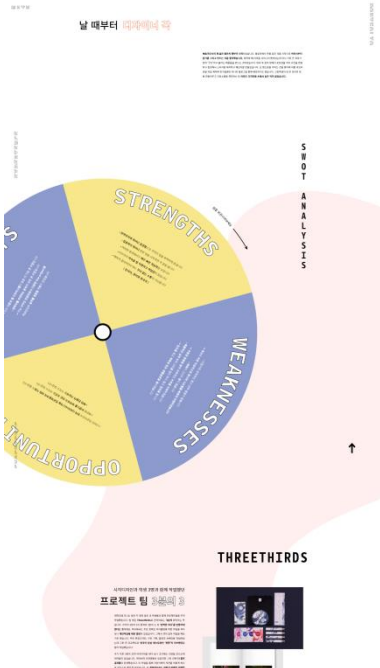
다만 조금 단조롭고 이미지간의 간격이 좁다는 느낌을 받았고, 조그마한 휴대폰 액정 화면으로 보면 더 아기자기하고 눈에도 쏙 들어왔을 것 같은데 모바일 크기로는 반응하지 않는 점이 의아했다.

출처 : <http://asteriskina.com/>

➡ 벤치마킹 분석



비즈니스 모델: 구글 Chrome 브라우저, 1024x768 픽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



아기자기하고, 동적이고, 다양한 애니메이션 연출을 볼 수 있어 기발하다는 느낌을 받았다.

특히 Experience 메뉴의 마지막 내용인 '사람들이 말하는 나'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어필의 방법이라 굉장히 신선했다.

반면 거의 모든 내용이 줄글로 쭉 늘어져 있고 폰트 사이즈가 유독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는 점 (결국 내용은 읽지 않았다),

홈 화면의 "뭘 클릭하란 거야? 어찌란 거야?" 라는 고민이 절로 들게 하는 디자인,

좋게 말하면 동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번잡스러운 과한 애니메이션 등
보기에는 재미있으나 여러모로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.

출처 : <http://www.joanneleegraphics.com/index.html>

⇒ 페르소나 모델



박도리탕 (29세, 남)

직업 : 무직, 웹퍼블리셔 취준생

이용목적 : 본인의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

요구사항 : 창의력은 부족하지만 무난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지는 않다.

본인의 실력은 썩 좋지 못하지만 모두가 그렇듯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은 만큼 여러모로 참고 가능한 웹포트폴리오를 찾고 있음.

김쪽갈비 (32세, 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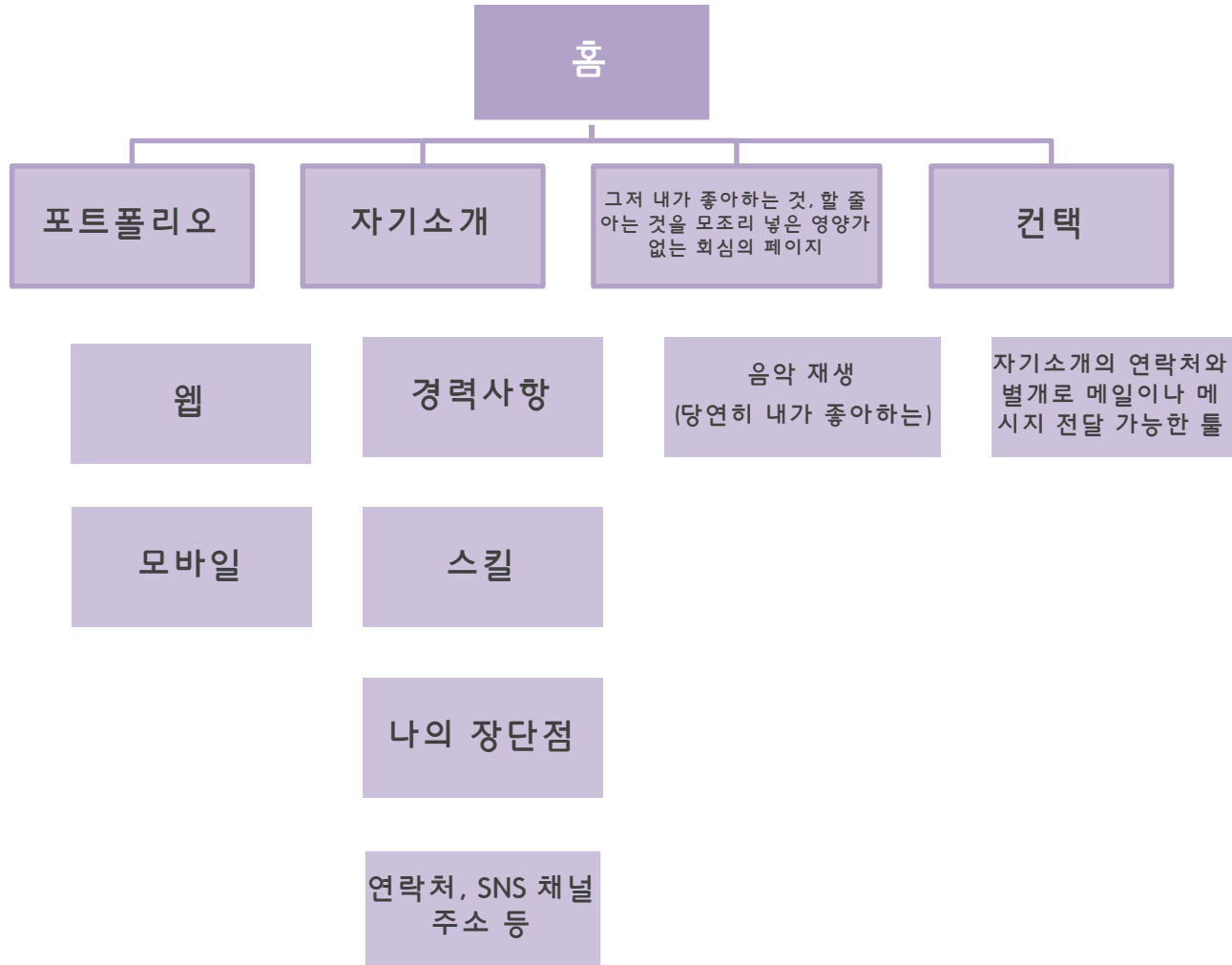
직업 : 웹개발자

이용목적 : 본인 직장에서도 근무할 신규 직원 물색 (가여운 직장인이라 본인 의사는 아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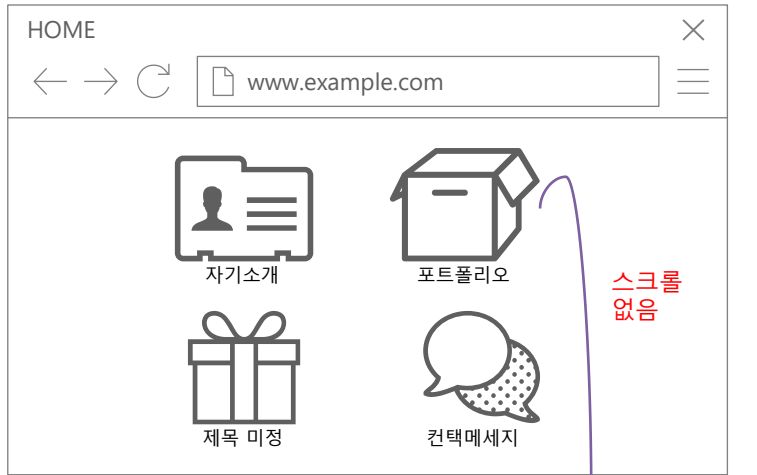
요구사항 : 본인과 함께 근무하게 될 테니 이왕이면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다. 포트폴리오로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하고 싶다. 성격이 좋았으면. 그런데 흔한 가식적인 멘트를 걸러 볼 수는 없어 머리 싸매는 중.



➡ 정보 구조도



➡ 와이어프레임



타임라인대로 배치?

